

제38호(2017. 8. 18.)

AI 재발과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따른 닭고기 소비 변화

심민희 이형우 지인배



목 차
contents

1. 최근 닭고기 관련 이슈	1
2. 육계 수급 및 가격 현황	3
3. 소비자 조사 결과	4
4. 결론 및 시사점	7

감 수	박성진 부연구위원	061-820-2025	seongjin20@krei.re.kr
내용 문의	심민희 연구원	061-820-2229	min2727@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현안분석 제38호

AI 재발과 치킨 가격 인상 논란에 따른 닭고기 소비 변화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7. 8.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6월 HPAI 재발, 치킨업체의 가격 인상 논란, 특정 업체 치킨 불매 운동 등으로 닭고기 수요 감소
 - 2017년 4월 3일 마지막 HPAI 발생 후 종식 수순을 밟고 있던 6월 2일, 제주도, 전북, 부산, 경기 등 전국의 소규모 토종닭 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하였고, 정부(국민안전처)는 신고 독려를 위해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가맹점 수익 악화를 이유로 치킨 판매업체에서 치킨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소비 둔화로 양계 협회가 불매운동에 나섬. 여론 악화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치킨 가격 인상을 철회함.
 - AI 발생 이후 닭고기 소비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프랜차이즈, 대리점, 유통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함.

- 6월 닭고기 소비 변화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64.1%는 닭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하였으나, 최근 치킨 업계의 가격 인하 방침에 따라 소비자들의 소비 의향이 상승함.
 - 닭고기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로 6월 닭고기 소비가 15.4% 감소하였음. 6월 닭고기 소비를 줄인 응답자의 감소 이유 중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치킨업체 가격 인상 논란' 18.2%, 'AI 관련 재난 문자메시지 수신' 12.9%, '특정 업체의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불매운동' 10.5% 순으로 조사되었음.
 - 6월 중순 이후 치킨업체의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의향은 늘리겠다는 응답이 53.5%로 나타남. 7월 닭고기 소비 의향에서는 변동 없음이 49.4%로 가장 많았으며, 늘리겠다 32.5%, 줄이겠다 18.1%로 나타남.

-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와 소비 확대 전략 수립 필요
 - HPAI 발생 이후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질병 발생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됨. 특히, 재난 문자 발송 등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비자에게 닭고기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닭고기의 안전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 하반기 육계는 공급 과잉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 행사, 신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닭고기 제품 개발 노력도 요구됨.
 - 업체들의 치킨 가격 인하 방침으로 닭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련 업계(프랜차이즈, 계열업체, 생산자 단체 등)의 상생 협력을 통해 유통마진 축소 등 가격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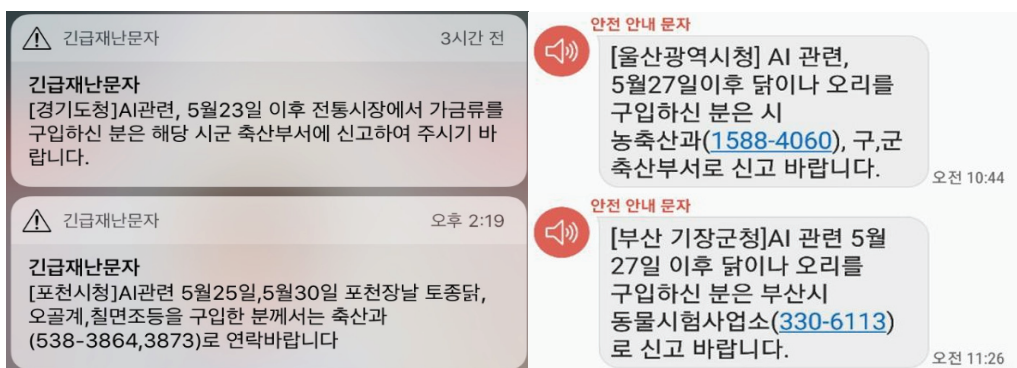
01 | 최근 닭고기 관련 이슈

AI 재발, 치킨 가격 인상 논란, 불매운동 등 닭고기 관련 이슈 대두

□ AI 재발과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닭고기 소비 심리 위축

- 2016년 11월 16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라 닭고기 소비 심리가 위축됨.
 - 50개 시·군에서 383건이 양성 확진되었고, 가금류 3,787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음.
 - 전국적인 AI 발생과 대규모 살처분으로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어 닭고기 기피 현상이 지속되었음.
 - 4월 초 이후 AI가 주춤하면서 닭고기 소비는 회복세를 보였음.
 - HPAI 종식 수순을 밟고 있던 상황에서, 지난 6월 2일 AI가 추가로 발병함에 따라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됨.
 - 6월 27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36건이 양성 확진되었고, 각 지자체에서 AI 의심신고 독려를 위한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소비 위축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 AI가 재발하면서 닭고기 관련 프랜차이즈, 대리점, 유통점 등에서 전반적으로 닭고기 소비가 다시 감소함.
- ※ 가금육, 불안심리 퍼져 소비 위축 (한국농어민신문, 2017.06.09.)
 AI 때문에... 삼계탕집 울고 돼지고깃집 웃고 (경상일보, 2017.06.13.)
 입식 줄고 소비 공포... 가금업계 '초복 경기' 암울 (한국농어민신문, 2017.06.16.)

〈그림 1〉 AI 관련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



□ 치킨 가격 인상 논란

- 5~6월 A치킨 판매업체 가격 인상에 이어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 인상안을 발표함에 따라 치킨 가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됨.
 - 인건비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한 가맹점 수익 악화를 인상 이유로 제시함.
 - 대한양계협회는 AI 발생으로 소비가 감소한 상황에서 치킨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더욱 위축되자 불매운동에 나섬.
 -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와 여론 악화로 인해 6월 중순 가격 인상을 철회함.
 - 최근 일부 업체는 소비 증진을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음.

□ 치킨 판매업체 임원의 비윤리적 사건 발생

- 6월 5일 B치킨 판매업체 임원의 여직원 성추행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방송에 보도됨.
 -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면서 이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확산됨.
 - 사건 이후 업체 매출액은 급감¹⁾하였으며, 최근 가격 할인으로 소비자의 불매에 대응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AI 재발 및 치킨에 대한 각종 이슈 보도 이후 닭고기 시장의 수요와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요인이 닭고기 소비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여 향후 닭고기 시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1)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실에서는 최근 3개월여간 해당 업체 가맹점의 일별 카드매출액(4개 카드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사건 보도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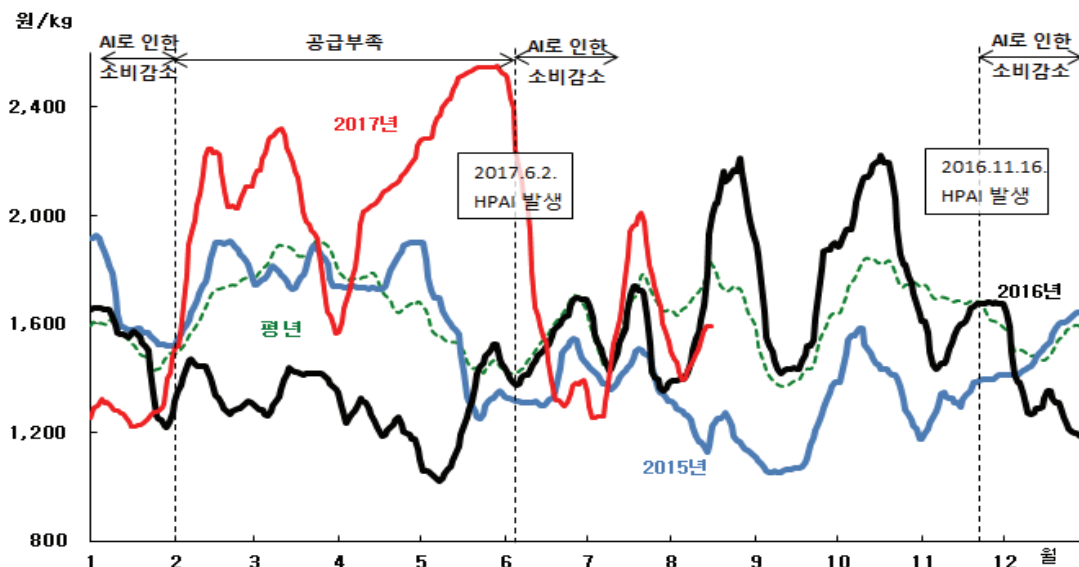
02 | 육계 수급 및 가격 현황

6월 소비 위축으로 닭고기 가격 하락세

□ AI 재발 이후 육계 산지가격 하락세

- 작년 11월부터 발생한 AI에 따른 종란 폐기, 종계 살처분, 이동제한 등의 영향으로 병아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7년 1~5월 육계 공급이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하였음.
 - 육계 살처분 마릿수는 약 420만 수로 사육 마릿수의 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임.
 - 1~5월 도계 마릿수: 3억 4,758만 마리(전년 동 기간 3억 9,389만 마리보다 11.8% 감소)
 - 1~5월 육계 산지가격: 1,960원/kg(전년 동 기간 1,342원보다 46.1% 상승)
- 6월의 AI 발생은 토종닭에서 발생하여 육계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음.
 - 6월 도계 마릿수: 8,852만 마리(전년 동월 9,003마리보다 1.7% 감소)
 - 6월 육계 산지가격: 1,666원/kg(전년 동월 1,536원보다 8.5% 상승)
 - 순별로 보면, 중하순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임.
 - ※ 6월 상순 2,249원/kg, 중순 1,529원/kg, 하순 1,347원/kg

〈그림 2〉 닭고기 가격 추이



자료: 농협중앙회(5일 이동평균가격).

- AI 재발 및 치킨 가격 인상 논란, 치킨업체 임원의 성추행 사건 등은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6월은 계절적으로 닭고기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데다 AI 여파로 도계 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30% 내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예상과 달리 소비 감소로 인하여 육계 산지가격은 전월보다 32.9% 하락함.

03 | 소비자 조사 결과

3.1. 조사 개요

- AI 재발 및 치킨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소비자들의 닭고기 소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기간: 2017년 6월 23~26일
 -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소비자 패널 610명
 - 조사방법: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조사
 - 표본오차: ± 3.73 (95% 신뢰수준)
-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가족수는 4인(50.0%)이 가장 많았으며, 3인(26.9%), 2인 이하(11.5%) 순임.
 - 가구당 소득은 400만~500만 원(27.4%)이 가장 많았으며, 300만~400만 원(24.8%), 500만~600만 원(17.7%), 200만~300만 원(12.8%) 순임.
 - 연령대는 50대(41.1%)가 가장 많았으며, 40대(37.5%), 60대 이상(12.5%) 순임.
 - 직업은 주부(53.6%)가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17.9%), 관리직(8.9%) 순임.

3.2. 조사 결과

□ 6월 닭고기 소비 감소

- 응답자 중 64.1%(391명)가 6월 닭고기 소비를 줄였다고 응답함. 평상시와 비교하여 6월 닭고기 소비량은 15.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소비자의 6월 닭고기 소비 변화

설문 내용	응답자수(명)	비중(%)
닭고기 소비량을 줄였다	391	64.1
닭고기 소비량을 늘렸다	50	8.2
닭고기 소비량은 변동 없다	169	7.7
합계	610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2017년 6월 23~26일).

□ AI 재발 및 치킨 관련 뉴스 보도 등이 닭고기 소비 감소의 원인

- 6월 닭고기 소비를 줄인 응답자의 소비 감소 이유 중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치킨업체 가격 인상 논란 18.2%, AI 관련 재난 문자메시지 수신 12.9%, 특정 업체의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불매운동 10.5%로 조사되었음. 기타로 ‘가격이 비싸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 육계 계열업체 면담 결과, 이번 AI 재발 시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추가적인 소비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AI 재발’과 ‘AI 관련 재난 문자메시지 수신’ 항목을 분리하여 조사함.

〈표 2〉 닭고기 소비 감소 이유(중복응답)

설문 내용	응답자수(명)	비중(%)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	361	54.7
AI 관련 재난 문자메시지 수신	207	12.9
치킨업체 가격 인상 논란	267	18.2
특정 업체의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불매운동	205	10.5
기타	56	3.7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2017년 6월 23~26일).

- 6월 소비 감소율과 감소 요인별 비중을 토대로 각각의 영향력을 추정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로 인한 소비 감소가 8.4%, 치킨업체 가격 인상 논란에 따른 소비 감소 2.8%, AI 관련 재난 문자메시지 수신으로 인한 소비 감소 2.0%, 특정 업체의 사회적 이슈에 따른 불매운동 영향이 1.6%, 기타 0.6%로 나타남.

□ 치킨 가격 인하, 소비 증가 효과 높아

- 최근 치킨업체의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비 의향을 조사함. 조사 결과,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3.5%, 아무 차이 없다 38.8%, 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7.7%로 조사됨.
 - 닭고기의 수요탄력계수는 -0.52로 10% 가격 인하가 5.2% 소비 증가로 이어짐.

〈표 3〉 치킨 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 의향

설문 내용	응답자수(명)	비중(%)
소비량을 줄이겠다	47	7.7
소비량을 늘리겠다	325	53.5
소비량은 변동 없을 것이다	236	38.8
합계	608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2017년 6월 23~26일).

□ 7월 닭고기 소비 6월보다 늘어날 듯, 복날 소비 영향

- 응답자 중 49.4%(301명)가 7월 닭고기 소비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늘리겠다 32.5%, 줄이겠다 18.1%로 나타남. 7월 닭고기 소비량은 1.3%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4〉 소비자의 7월 닭고기 소비 의향

설문 내용	응답자수(명)	비중(%)
닭고기 소비량을 줄이겠다	110	18.1
닭고기 소비량을 늘리겠다	198	32.5
닭고기 소비량은 변동 없을 것이다	301	49.4
합계	609	100.0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2017년 6월 23~26일).

- 7월에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자의 증가 이유 중 ‘복날 보양식에 쓰려고’가 59.1%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 등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서 17.2%,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여 11.6%, 가격이 저렴해서 7.6%로 조사되었음.

〈표 5〉 7월 닭고기 소비의향 증가 이유

설문 내용	응답자수(명)	비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여	23	11.6
가격이 저렴해서	15	7.6
배달 등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서	34	17.2
복날 보양식으로 쓰려고	117	59.1
기타	9	4.5

자료: 농업관측본부 소비자조사 결과(2017년 6월 23~26일).

04 | 결론 및 시사점

□ 닭고기 관련 부정적 이슈로 소비 감소

- 작년 11월부터 발생한 AI 여파로 닭고기 공급이 감소하면서 상반기 육계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음. 4월 초 이후 두 달간 AI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소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음. 하지만 6월 초 AI 재발, 재난 문자 발송, 치킨업체의 가격 인상 논란, 특정 치킨업체 임원의 비윤리적인 행동 등 닭고기와 관련한 많은 이슈가 발생하였으며, 다양한 논란 속에서 소비자들은 닭고기 소비를 줄임.
- 이와 관련하여 AI 발생, 치킨 가격 인상, 불매운동 등이 닭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어 소비자 조사를 실시함. 소비자 조사 결과, 6월 닭고기 관련 이슈 발생 후 닭고기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닭고기 소비량이 1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AI 재발로 소비를 줄였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54.7%를 차지하였고, 닭고기 대신 돼지고기 소비를 늘린 것으로 조사됨. 7월 닭고기 소비는 복날 소비 영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닭고기 수요 감소로 육계 산지 가격 하락

- 육계 공급 감소와 계열업체 구매 의사 증가로 6월 닭고기 가격 강세가 예상되었으나, AI 재발 이후 수요가 감소하면서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함. HPAI 발생 시마다 공급 감소보다 심리 불안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6월 상순 2,249원/kg, 중순 1,529원/kg, 하순 1,347원/kg
- 더불어 이번 닭고기 가격 하락 요인은 AI 재난 문자메시지와 치킨업체들의 가격 인상, 특정 업체에서 발생한 비윤리적 행동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감소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 HPAI 발생 이후 소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질병 발생이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됨. 특히 이번 AI는 여름철에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이 필요함.
- 과거 AI 발생으로 야기된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소비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됨. AI 발생으로 급감한 닭고기 소비가 회복

되는 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AI 발생으로 소비 기피 현상이 발생하며, 빠른 소비 회복을 위해 닭고기 안전성에 대한 적극 홍보 등을 꾀함.

※ 2003년 12월~2004년 3월 20일 AI 발생 소비 감소 → 최초 발생 2개월 후 회복

2006년 11월~2007년 3월 6일 AI 발생 → 최초 발생 1개월 후 회복

2008년 4월~2008년 5월 12일 AI 발생 → 마지막 발생 1개월 후 회복

2010년 12월~2011년 5월 16일 AI 발생 →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여 닭고기 소비 증가

※ 추가 발생 시마다 산지 가격 약세를 띠긴 하나, 최초 발생보다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음.

○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따라 수요를 변화시킴. 소비자에게 닭고기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닭고기의 안전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

- 관련 업계와 정부에서 AI 안전성을 홍보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등 빠른 대처가 필요함. 또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축산물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AI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은 소비자의 닭고기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향후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번 닭고기 소비 감소는 관련 뉴스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극대화되었음. 육계산업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함.

□ 소비촉진행사 등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이번 AI는 소규모 토종닭 농가를 중심으로 재발하였으며, 육계 및 육용종계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올해 초 AI 이후 종계도태가 지연되면서 하반기 육계는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 행사, 신제품에 대한 신규 수요 창출 등 소비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객 트렌드(가정대용식, 간편편의식, 반가공/반조리 제품 등)에 맞춘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여야 함.

○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하 방침으로 닭고기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련 업계(프랜차이즈, 계열업체, 생산자 단체 등)의 상생 협력을 통해 유통마진 축소 등 가격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성 제고 방안, 소비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업계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육계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